

치밀한 구도로 경전한 가르침을 새기다

#1. 도솔내의상(兜率來儀相)

도솔천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와 중생을 구제하시고자 카필라성 정반왕과 마야부인의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 마야부인의 태속에 들어가는 장면이다. 마야부인이 낮잠을 자는 동안 호명보살이 흰 코끼리를 타고 마야부인의 태속에 들어가는 장면이 잘 표현되고 있으며, 자식이 없어 노심초사하던 정반왕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장면이 이야기의 전개와 같이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어 그림만 보아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도솔내의상

#2.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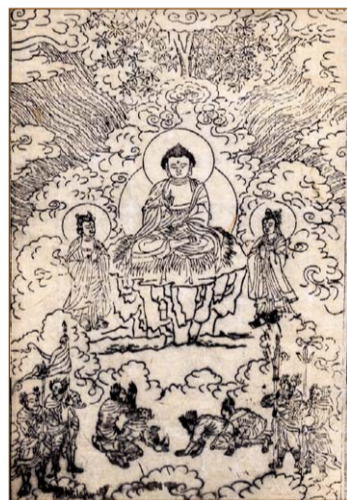
태자를 인태하여 산달이 되자 당시 풍습에 따라 천정인 데바하다(천비성)로 가는 도중 들비니 동산에서 산기를 느껴 무우수 나무를 잡는 순간 오른쪽 옆구리로 태자를 낳는 장면을 왼쪽 화면에 잘 표현하고 있다. 옆구리를 통해 부처님을 받고 있는 천녀의 모습을 통해 부처님이 왕자의 몸으로 태어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화면의 오른쪽 장면은 부처님이 탄생하고 난 다음 하늘의 아홉용이 부처님을 씻어주는 모습과, 사방의 부족도 없이 스스로 사방을 일곱 걸음 걸으며, 옮기는 걸음마다 수레바퀴 같은 연꽃송이가 피어올라 그 걸음을 받쳐주었다는 경전의 말씀이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일곱 걸음씩 걷고 난후에 사방과 상하를 둘러본 보살 원손은 위로 오른손은 아래를 향해 사자처럼 외친다.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삼계가 모두 고통 속에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부처님이 세상오심을 일리는 인간해방선언의 말씀이 우리 귀를 지금도 울리고 있는 듯하다.



#2. 비람강생상

#3.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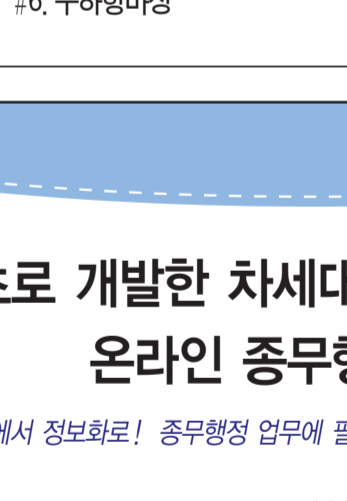
깃달타 태자가 성의 동서남북 네 문을 통해 저자거리에 나가 고통스런 백성들의 삶을 인식하고 새로운 가치관의 세계를 발견하는 장면이다. 원본에서는 네 장면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사람의 죽음 장면을 보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인간현실을 느끼는 장면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생로병사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 출가를 결심하게 된다.



#3. 사문유관상

#4.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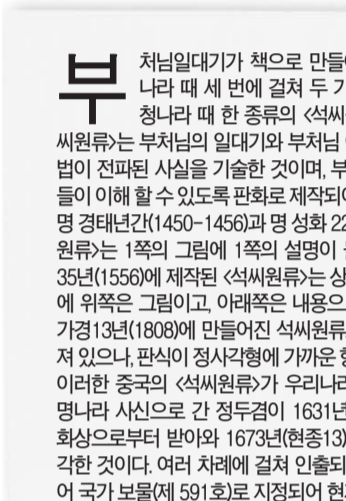
태자는 성을 나와 몸을 돌려 카필라성을 보면서 사자처럼 외친다. "나는 이제 처리리 스스로 절벽 위에서 이 몸을 던져 큰 바위에 떨어질지 언정, 모든 욕망을 마시고 목숨을 끊을지언정 또한 스스로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아 죽을 지언정 만약 내가 마음에 다집한다면 중생들을



#4. 유성출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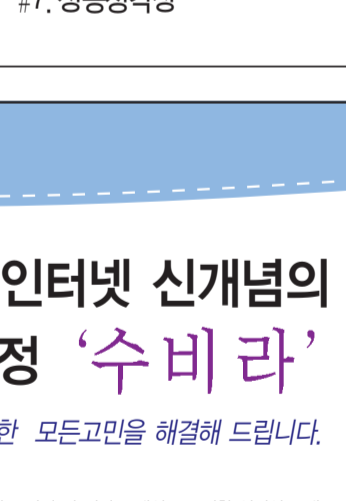
#5. 사문유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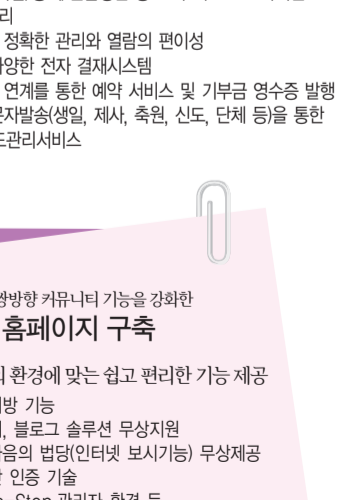
#6. 유성출가상



#7. 유성출가상



#8. 유성출가상



#9. 유성출가상

부

처닐대기가 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중국에서는 명나라 때 세 번에 걸쳐 두 가지 종류로 만들어졌으며, 청나라 때 한 종류의 <석씨원류>가 만들어 졌다. <석씨원류>는 부처님의 일대기와 부처님 이후 서역 및 중국에서 불법이 전파된 사실을 기술한 것이며, 부처님 일대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판화로 제작되어 있다. 명 경태간(1450-1456)과 명 성화 22년(1486)에 제작된 <석씨원류>는 1쪽의 그림에 1쪽의 설명이 들어간 형식이며, 명 가경 35년(1556)에 제작된 <석씨원류>는 상도하문식으로 1쪽의 화면에 위쪽은 그림이고, 아래쪽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형식이다. 청 가경 13년(1808)에 만들어진 석씨원류도 1도 1문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판식이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석씨원류>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불암사판'은 명나라 사신으로 간 정두겸이 1631년(인조9)에 북경에서 대검 화상으로부터 받아와 1673년(현종13)에 남양주 불암사에서 복각한 것이다. 여러 차례에 걸쳐 인쇄되었으며, 원판이 잘 보존되어 국가 보물(제 591호)로 지정되어 현재불교중앙박물관에 소장

되어 있다. 상도하문식으로 만들어진 선운사 <석씨원류>는 명 가경 35년(1556)판을 사명대사가 사절단으로 일본에 건너갔을 때 1절을 가지고 귀국하여 인조 26년(1648)에 최서옹, 해운법사 등이 고창 선운사에서 간행하였다. 청나라판은 우리나라에서 복각되지 않은 판본이다. 명주사 고관화박물관에는 '불암사판' 석씨원류 1234권 전본을 소장하고 있으며, '선운사판'은 2,4권만 소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 청나라본의 원판 1장을 소장하고 있어 중국 사찰판본의 판각 솜씨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판본의 영인본들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복각본과의 비교를 통해 판화교류사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된다. '불암사판'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중국판본의 화려하고 세밀한 부분 등을 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원본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팔상도'를 통해 부처님 일대기를 정리하지만 여기서는 아홉 개의 옛판화를 통해 부처님의 일대기를 살펴보자.

고통의 바다에서 해탈시키지 못하면 결코 카필라성에 다시 돌아가지 않으리라." 비장한 결의를 높은 성을 밭을 타고 넘는 장면으로 의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5.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6년 동안 갖은 고행을 겪으며 스승을 찾았다 니다가 스승은 밖에 있지 않고 자기 안에 있음을 깨달아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깨달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듯 설산의 모습이 눈이 녹아 따뜻한 봄을 연상시키고 있다.

#6. 수하함마상(樹下降魔相)

선정에 들어가 갈등이 심하지만 수행이 자신의 투쟁임을 깨닫고 용맹 정진하여 마침내 마군의 항복을 받고 깨달음의 경지에 드는 모습이다. 천군만마를 이기는 자보다 자신을 이긴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씀하셨듯이 모든 마음의 번뇌와 싸워 이기신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을 마군들이 부처님께 항복하는 장면으로 표현되고 있다.

#7. 성등정각상(成等正覺相)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떨어지는 별을 보고 깨달음을 완성한 고토마리는 기쁨으로 선언한다. "이제 어둠의 세계는 타파되었다. 내 이제 다시는 고통의 수레에 밀려 들어가지 않으리, 이것을 고뇌의 최후라고 선언하며 이제 여래의 세계를 선언하노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깨달음의 순간들을 새로이 정리해 보고자 계속 그 자리에서 명상에 들어간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

#8. 녹원전법상(鹿苑轉法輪相)

깨달음을 이룬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곳에서 500리쯤 떨어진 녹야원에 가서 처음으로 5명의 수행자에게 설법하여 그들을 귀의시키는 모습이다. 이 그림을 통해 2600여 년 동안 인류에게 희망과 광명의 빛이 되신 불법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위대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음을 우리는 본다.

#9.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한 후 자기 자신과 진리를 등불로 삼아 용맹 정진할 것을 당부하고 사라성수 아래서 열반에 드는 모습이다. 열반에 드신 부처님을 보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슬퍼하는 제자들이 화면에서 바로 나올 듯이 묘사되어 있다.

한선학 치약산 명주사 고관화박물관

국내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인터넷 신개념의 온라인 중무행정 '수비라'

전산화에서 정보화로! 중무행정 업무에 필요한 모든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 사찰과 신도간의 신뢰감 확보
- 행정업무 Process의 체계화
- 행정업무의 효율성

수비라 중무행정 도입에 따른 중무행정관리 업무는 향후 10년 정도의 앞을 내다보고 사찰의 정책에 반영하기위해 사찰의 운영 현황, 신도 현황, 접수 내역 현황 등의 통계자료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인 사찰운영과 포교의 활성화 및 정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주] 탑스컴 TOPSCOM
www.topscm.net
TEL 031)965-6629 / FAX 031)965-6627
경기 고양시 화정동 967-1 한솔빌딩 1007호
불교마을 www.templevill.com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마루판



◆ 조립식 원두막 방갈로 7000×3500×3300(mm)평 165만원



◆들로 청소하는 평상 1800×1030×350(mm) 가격: 190,000

연결, 이동 사용 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갈라지거나 타점이 전혀 없고 주기적 도색이 관리가 필요 없어 반 영구적이며 특히 촉감이 부드럽고 비 온후 바로 앉을 수 있는 제품

지구산업
www.bangaro.com/ 조립식경상
TEL: (063) 323-3011~2
FAX: (063) 323-3010
계좌번호 (농협) 519-02-203482 예금주: 지구산업 박영호
전통목부가세발도 전국대리점모집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종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규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9번 구운 가루 죽염 125g 27,500원
- 가루 죽염 230g 50,000원
- 알갱이 죽염 125g 27,500원
- 알갱이 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 승광사, 봉선사, 부석사, 봉인사 등 전국사찰 50여개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 제공중